

# 정치자금법 개정안 끝내 불발

국회 행안위 “청목회 수사중 처리 적절치 않다”

## 예산안 처리후 추후 논의

청목회 사태 이후 주간됐던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6일 정치자금 제도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안팎에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면서 철회했다.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이날 여야 행안위원회들의 접촉 뒤 “법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문제 가 있다고 판단해 예산안 먼저 처리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올해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원들이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개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6일 오전 국회 국토위에서 민주당 최규성, 김진애,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4대강 반대 손피켓을 들고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뚝 끊긴 국회의원 연말 소액 후원금

##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 여파

### 여야 '예년의 1수준' 불과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 여파로 연말에 집중되던 국회의원 소액 후원금이 뚝 끊겼다. 예년 같으면 연말은 각종 법인이나 단체 직원 등으로부터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이 몰리는 ‘대목’이다. 후원금은 10만원 까지 전액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의원 사무실은 이를 독려하며 후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청목회 수사는 이 같은 연말 풍경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조차 “평년의 절반도 모으지 못해 내년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여서 평년의 2배(3억원)까지 모을 수 있는데 성과는 턱없이 부족해 그 상실감은 더욱 크다.

영남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의 한 재선의원은 6일 “올해 연말 농사는 끝났다. 꽁꽁 얼어서 녹을 생각을 안 한다”며 “보통 비행기를 타고 지역에 내려오는데 교통비는 물론이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답답해 했다.

서울 출신의 한나라당 재선의원은 “예년에는 연말에 후원금 한도를 넘었는데 올해 연말에는 300만~500만 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10만원짜리 후원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예년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당 의원들의 경우 사정은 더 어렵다.

광주지역의 민주당 초선의원은 “예년에는 연간 7000만~80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모금했고, 이중 절반이 11, 12월에 들어왔는데 올해는 지지자들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후원금만 있을 뿐 소액 후원금은 거의 끊겼다”며 “내년 정치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의 한 의원은 “후원금 문의가 올 때 괜한 오해를 살까봐 보내지 말라고 한 경우도 상당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후원 가능성이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 검찰이 이같이 엄격한 자대를 맨다면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후원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국회법 조항을 준용해 이 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달라는 내용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이 위원장은 또 8일 0시 이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회의 개의시간을 지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예결위 계수소위가 심사기간 내에 예산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 예산안 처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국회법 조항을 준용해 이 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달라는 내용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했다.”며 “8일부터는 언제라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새해 예산안 심사

### 오늘밤까지 마쳐 달라”

#### 이주영 예결특위원장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6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달라는 내용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이 위원장은 또 8일 0시 이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회의 개의시간을 지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예결위 계수소위가 심사기간 내에 예산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 예산안 처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국회법 조항을 준용해 이 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달라는 내용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했다.”며 “8일부터는 언제라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암 을 다스리는 해조의학 후코이단

### 세계는 왜 후코이단을 주목하는가?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차기버섯, 산삼, 플로풀리스등은 면역세포를 강화시키거나 그작용을 돋울 때에만 그친다. 그러나 세계가 주목하는 후코이단은 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아포토시스(Apoptosis):세포의 자가소멸, 자살과 한다. 후코이단은 암치료 및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의학의 꽃으로 일본과 미국, 유럽의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다.

###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 (본문 중에서)

위암 재발 방지를 위해 먹기 시작한 해조 후코이단 덕분에 위암 전이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고 몸 상태도 크게 호전되었다.

유방암 유방 적출수술 후, 남아 있는 한쪽 유방에도 암이 전이될까 두려웠는데, 해조 후코이단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전립선암 전립선에 생긴 암이 빠져나온지 5년이 되었지만 수술이나 화학요법을 받긴 무리가 있고, 또 QOL(quality of life)을 위해 해조 후코이단을 선택했다. 그결과 PSA 수치가 기적적으로 낮아졌다.

난소에서 폐, 간으로 전이된 암 난소암이 폐와 간으로 전이되어 무척 힘들었는데 해조 후코이단 복용 후 폐암은 사라지고 간암도 많이 호전되었다.

대장암 2단계에 못 산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해조 후코이단이 지난 아포토시스, 혈관신생 억제, 면역부활작용 덕분에 대장의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1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뇌종양 방사선요법의 부작용을 덜기 위해 해조 후코이단을 먹은 것이 최상의 선택, 덕분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종양이 점점 사라지는 중이다.

암세포만을 골라 자살(아포토시스)로 물어넣는 후코이단 전 세계 1,000여편의 논문이 증명한 놀라운 기능!

무료주문전화 070-7809-5151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2,400원 본인부담)

##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 '35년 전통' 수공예 명품시계



### 300점 한정 생산 판매 자동기계식 명품시계

해 세련미를 더했다. 미네랄 라운드 강화유리를 채용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소가죽 벤드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판과 베를리온 자갈로 고를 새겨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철저한 A/S 도장점이다.

기능도 한 층 강화됐다. 일본 외제 자동기계식 작동원리를 채용했다. 날짜와 요일 표기는 물론

MADE IN KOREA  
02-522-7667

## 제주도 현지여행사

#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 또아아 목포출발, 녹동(고흥)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 제주도 여행 2박 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 관광도 가능합니다. (₩ 99,000원)

참수함, 유람선,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 목포출발 “목카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9시 또는 14:30)출발→호텔 1박  
• 2일째 : 제주관광→제주항 16:50 출발(단, 일요일은 16:30 출발)  
★ 출발일 : 매일 출발

★ 포함내역 : 원봉선박, 숙박2박(4인1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 녹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호텔 1박  
• 2일째 : 제주관광→제주항 17:10 출발  
★ 출발일 : 매일 출발(일요일 별도 문의)  
★ 포함내역 : 원봉선박, 숙박2박(4인1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15,000원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한라산등반 + 2일 제주관광)

● 농 협 ● 정정아 1079-12-183903

배편,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지

◆ 등록번호 616-81-68236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을 쳐보세요!

##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한라산 등반 15,000원

## 2박 3일 광주 출발 항공 + 항공투어 169,000원(주중 + 주말) 179,000원(주중 + 주말)

\* 유류 할증료 별도, 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 목카렌트카투어 107,000원 (4인 기준)

★ 일정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09:00)출발→제주항 도착 → 호텔 1박  
• 2일째 : 자유관광 → 호텔 1박  
• 3일째 : 자유관광 → 제주항(17:30) 출발  
◆ 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

문의: ☎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 협찬 남해고속 www.jeumt.net | 씨월드고속웨리

## “여수엑스포·U대회·F1 등

### 지역 핵심사업 중점 관리”

#### 서갑원 민주당 예결위 간사 인터뷰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한층 심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년 연속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가 현실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감액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예산 70%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나.

▲이는 원칙적인 문제다. 국민의 70%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 천문화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끝내려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6일 서갑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은 “4대강 사업은 예산안에 끝내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삼각화하겠다.”

-4대강 예산 70% 삭감하겠다는 것은 여야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없나.

▲ 역시 4대강 사업은 관건이다. 여당이 이제는 양보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2년 연속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제 민주당 등 야당은 물러설 곳이 없다. 한나라당이 진실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합의 처리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그야말로 정치 논리다. 예산 심사를 중단하고 자기들이 정해놓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수엑스포,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F1 대회 등 핵심사업을 따로 중점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여타 신규 사업과 SOC 예산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고 확보를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산국회 막바지에 애를 태우기보다는 상반기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정기국회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